

지금 바로 메일 보내겠습니다.  
내용충화도 가능한 빠르게 하겠구요.

〈금지〉

얼른 감기 나오세요!

=====

[RE] 의문.

보낸날짜 2003년 10월 11일 토요일, 낮 1시 00분 11초 +0900 (KST)

보낸이 "마고할미" <mago4@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함께 받는이 <littlepool@hanmail.net>, <hjagnes75@naver.com>, <dangdang1@naver.com>, <sweated@hanmail.net>,

<vitamin-x1@hanmail.net>, <juiy80@hanmail.net>, <>null93@hanmail.net>, <esue@dreamwiz.com>, <chema@naver.com>

소속기관 freelancer

피해자에 관해 주변에 말하고 다닐 사람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인물은

바로 강위원 본인일 것이다. 함부로 떠들고 다녔음이 분명하고..

그 주변에서 "약해지지 말라"고 위하는 척 하면서

이번 일의 해결을 힘들게 만든 강위원의 후배들이 있다.

"민가협이 어떤 이가 가족들에게 말한 듯" 하다고 한

임병아의 지레짐작은 옳지 않다고 본다.

피해자의 지인들 중에도

그 쪽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절대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하지만

임병아 개인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본다.

\* 덧붙임 : 이번 메일은 uni-action과 대척모임(9인)에게 발송함.

## 비대위 1차 회의 9.26 보고

1. 참가자 : 피해자, 대책모임 1인, 전여대협 1인

### 2. 주요 논의 사항

#### 1) 피해자의 의도 및 요구안에 대한 예기

- 강위원 성폭력 사건 공개화를 통해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언어화가 계속되었으면 한다.
- 한총련 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 학생운동 세조직 건설에 있어서도 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내용을 과감하게 제기해야한다.
- 이 사건을 최대한 진공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더 시간을 끌면 더 힘들어진다.

- 계획 초안 중 '이 사건의 공개가 가져올 악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제출.  
이에 대해 전여대협에서는 '악의적 여론'을 '악영향'이라는 단어로 잘못 선택해서 쓴 것임을 해명.

#### 2)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단위에 대한 논의

강위원 성폭력 사건을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로 바로 가져갈 것인지, <전여대협>을 주체 단위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음.

##### 피해자의 고민

- 전여대협은 강위원의 후배의 입장에서 있다보니 가해자에 대해 요구안 강제가 어렵지 않겠는가.
- 강위원은 현재 소속(단체)이 없는 사람이어서 전여대협에서 가해자를 총화하기 애매하지 않겠는가.
- 피해자 자신과 대책모임은 그동안 긴 시간과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다. 그러나 전여대협이 주체로 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100인위가 가지는 문제인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100인위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 전여대협의 고민

- 강위원의 후배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에 대해 고민이 있긴 했지만, 강위원은 소속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총화하더라도 애매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진행하면 된다.
-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100인위가 가지는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동의한다. 그러나 100인위가 성폭력 사건을 지원해온 방식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를 설득하고 강제하며 관점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되어야하는데, 100인위에서는 가해자의 진술을 직접 듣지 않다보니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사건 해결에 대해서는 변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위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어느 단위가 주체단위로 되며, 어느 단위가 연대단위가 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됨.

결국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전여대협이 사건 해결 주체 단위로 활동하며, 전여대협과 대책모임 2인이 비대위를 꾸린다.
- 사건 해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개화되기 직전에 100인위에서 이 사건을 제소한다. 100인위에는 이 사건에 대한 공개캠페인자료를 100인위 게시판에 올려줄 것 이후 연대가 필요할 때 연대를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 3) 향후 비대위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

#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 계획

발신 :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수신 : 강위원 성폭력 사건 대책 모임

## 1. 강위원 성희롱 사건의 해결 원칙

- 1)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성폭력의 경험을 얘기하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사건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가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고 성폭력적인 관점과 언행을 고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강제한다.
- 3) 운동사회 내 만연해있는 성폭력적인 문화와 풍토를 개선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에서 사건을 해결해가되, 결코 이 사건을 하나의 계기 정도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 4) 최대한 모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비대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건해결과정에서 평가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 해결과정을 점검하면서 진행한다.

## 2. 강위원 성희롱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1) 여기서 제안하는 <비대위>는 성폭력 사건의 공식적, 전문적인 해결을 주목적으로 한다.
- 2) 구성 : 1차적으로 전여대협과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2인)으로 한다. 피해자가 공개될 수 있으니 대책모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공개화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전여대협을 위시해 강위원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바라는 이들로 모인 것이라는 정도로 얘기될 수는 있겠다.
- 3) 대부분의 사건해결과정은 비대위 차원의 논의를 거친 후, 비대위의 이름으로 진행한다.
- 4) 진행 과정에서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에도 사건을 올린다.

※ 이후 사건의 해결과정을 보면서, 여러 단체들로 꾸려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는 이후 판단하기로 한다.

## 3.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하여

### 1) 피해자와의 소통

- ① 피해자의 요구와 의도를 정확히 알고, 최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을 해결해간다.
- ② 피해자와의 이메일(E-mail) 연락을 통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없었는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지금까지 사안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 앞으로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요구할 또 다른 요구안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 ③ 사건해결과정에서 최대한 모든 사항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해자가 피해의 경험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

## 4. 사건해결과정

### 1) 비대위 정기 모임

### 2) 피해자 면담

- 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사건일지를 토대로 한다.
- ② 피해자의 요구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 3) 요구안 마련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요구안을 마련한다.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요구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 ① 공식적인 공개 사과문

-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 무엇을 반성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지점(단지 가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과 사고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 서술 /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단체에 대한 사과 / 운동사회 내 성폭력적인 문화를 조성해온 가해자로서의 반성 / 앞으로의 구체적인 혁신과제와 실천과제 및 계획 /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 등

- 공개 사과문은 1차적으로는 피해자, 2차적으로는 비대위가 검토한 후 불충분했을 때는 재작성을 요구한다.

- 공개 사과문은 한총련, 전여대협, 양심수후원회, 보이지않는창살 등의 홈페이지를 비롯해, 학생운동단체, 민족민주운동단체, 여성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② 활동 정지

- 가해자는 강연을 비롯해 여러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고, 학생운동사회를 포함해 운동사회에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가해자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총회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활동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활동 정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어야 한다.

일단은 강연과 사회단체연계활동에 대한 활동 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고민된다.

-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간은 7년이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지냈던 7년의 세월의 크기만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이다.

#### ③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 정확한 시기와 전문기관을 가해자에게 명확히 공지하여 강제할 것

#### ④ 실천활동

- 가해자 재교육과 함께 실천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체적인 실천활동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는 자원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노동,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자활, 여성단체에서의 자활 등이 있을 수 있다. ← 더 고민이 필요)

- 기간은 3개월 (이 3개월 동안 활동 정지, 실천활동,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 ⑤ 학습

- 가해자가 제대로 재교육되기 위해서 학습은 필수적이다.

- 학습은 구체적인 커리를 제출해주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게 한다.

운동사회 성폭력 관련 각종 자료집, 색수열리터강의, 이주특별한 용기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자료를 수집한 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한다.

- 기간은 3개월

#### 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피해자의 주요 활동 근거지 및 거주지에는 가해자의 동행을 금지한다.

- 피해자의 전화나 메일 등으로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도록 강제한다.

-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가해자가 나타나면, 가해자는 무조건 피해자를 피해 만나지 않도록 한다.

#### ⑦ 정기적인 확인

- 위의 제반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위해 가해자를 만날 필요가 있다.

- 가해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요구안을 다시 명시하는 공개 대자보를 웹 상에 올린다.

#### ⑧ 가해자에 대한 재면담(총회)

- 가해자가 공개사과 이후 일정시간을 두고 위의 제반과정(활동정지,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천활동, 학습 등)을

진행한 후, 가해자를 재면담한다. 이는 가해자가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했는지, 그리고 일만큼 재교육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가해자 재면담을 하기 전에 먼저 가해자가 그간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느끼고, 반성했으며, 재교육했는지에 대해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4) 가해자 면담

##### ① 1차 면담

먼저 가해자를 만나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해 일만큼 인정하고 있는지, 만약에 반성을 한다면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해본다.

비대위는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사실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얘기하며, 향후 어떻게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갈 것인지 적절한 수준에서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가해자가 설득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사건 해결에 대한 전술을 알려주는 차원은 아니다)

1차 면담 후 비대위는 피해자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 및 반성여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과 구체적인 해결과정에 대한 계획을 다시 확인한다.

##### ② 2차 면담

가해자에게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한다.

한꺼번에 제시하기 보다는 우선 기본적인 해결원칙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여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면담을 할 때에는 비대위를 대표하여 전여대협 1인과 대리인 1인이 가해자를 면담한다.

#### 5) 사건해결과정에 대한 공개 대자보 (웹)

##### ① 1차 공개 대자보

-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과 함께 웹상에 올린다.

- 한총련, 전여대협, 양심수후원회, 보이지않는창살 등을 비롯해 학생운동단체, 민족민주운동단체, 여성단체 홈페이지에 올린다.

- 사건경위(간단한 서술),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문제점, 이제까지의 해결과정, 가해자 설명 공개 사과문, 이후 해결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건경위는 따로 전면 공개한다.

- 시기는 가해자가 설명 공개 사과문을 제출하고 나서, 비대위가 정리하여 올리는 것으로 한다.

##### ② 2차 공개 대자보

- 가해자가 요구안의 제반과정을 이행하고 비대위와 가해자가 재면담을 한 후 웹 상에 올린다.

- 2차 대자보가 필요한 이유는, 1차 대자보에서 반성문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 가해자의 반성과 재교육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해결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동의 해결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공개대자보의 역할은 단지 '이런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동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다시금 각인하고 공동으로 극복해가기 위한 것이다.

- 이제까지의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 전반 가해자의 총화서를 기본으로 한다.

##### ③ 가해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공개 대자보

- 만약에 가해자가 비대위의 요구안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비대위의 명의로 공개 대자보를 웹 상에 올린다.

- 이 경우에는 사건경위,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문제점, 이제까지의 해결과정,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 이후 해결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6)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만남

#### 7) 가해자가 비대위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① 일단은 면담을 통해 최대한 가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래도 정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공개 대자보를 비대위 명의로 낸다.

③ 한총련을 포함해, 여러 여성단체와 공동의 성명서를 낸다.

#### 8) 또 다른 피해자에 의한 성폭력신고가 접수될 때

똑같은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을 신고하게될 때에는 위의 과정과 같이 진행한다.

#### 9) 언론의 문제

① 현재와 같이 공개했을 때 언론에 노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② 모든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자료요청 등을 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비대위가 언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언론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 10) 강위된 성희롱 사건 관련 자료집 발간

- 해결 과정을 모두 문서화하여 이후 운동사회 내 성폭력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 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계획

1)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신고 접수 : 공개대자보를 통해

2) 한총련 일꾼들에 대한 교양 사업 : 전여대협이 담당

3) 전여대협, 한총련, + a(학생운동단체) :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4)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들의 공동성명서 채택

5) 한총련 반성폭력 규약 마련에 대한 요구

### 5. 시기별 계획과 흐름

#### 9월 4째주

피해자 면담, 비대위 첫 모임(비대위 계획 및 요구안 마련), 가해자 1차 면담

#### 9월 5째주 (10월 1째주)

가해자 2차 면담 및 요구안 제시, 가해자 공개 사과문 제출, 사과문에 대한 피해자와 비대위의 검토 / (한총련 중앙 및 중집에 대한 교양사업)

#### 10월 2째주

사건해결과정에 대한 공개대자보 작성 및 검토, 웹상에 올리기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 - 학습, 실천활동 시작

#### 10월 3째주~11월 1째주 (기간 재조정 필요)

가해자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는 시기를 정해준다.

(전문기관에 정확한 시간을 알아보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얼마간의 시기와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이 사이에 이행하도록 한다.)

#### 10월 2째주~11월 중

그동안 가해자가 비대위 요구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

가해자 재면담(총화)



[FW]강위원 성희롱 사건 비상대책위 1차 회의 보고

보낸날짜 2003년 09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 23분 51초 +0900 (KST)

보낸이 "전여대협" <9jydh@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전여대협

제목 강위원 성희롱 사건 비상대책위 1차 회의 보고

보낸날짜 2003년 0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47분 05초 +0900 (KST)

보낸이 "전여대협" <9jydh@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moim101@hanmail.net>

함께 받는이 <9jydh@hanmail.net>

지난 9월 26일 <강위원 성희롱 사건 비상대책위>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바로 한다는 것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고,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현재 가해자와의 연락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가해자와의 면담 일정이 잡히면 대책모임 2인에게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비대위 1차 회의 보고 문서와

성폭력 사건 해결 계획 수정 보완본을 보냅니다.

- 9기 전여대협

[참조:RE][대표 메일 인수인계] 알림

보낸날짜 2003년 09월 30일 화요일, 낮 1시 16분 46초 +0900 (KST)

보낸이 "마고할미" <mago4@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9jydh@hanmail.net>

함께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소속기관 freelancer

"난리" 님께 :

대책모임의 대표메일 관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음을 알립니다.

-----[ 받은 메일 내용 ]-----

제목 : [대표 메일 인수인계] 알림

날짜 : Tue, 30 Sep 2003 13:03:39 +0900 (KST)

보낸이 : "성희롱 대책모임" <moim101@hanmail.net>

받는이 : <vitamin-x1@hanmail.net>, <dangdang1@naver.com>, <chema@naver.com>

함께받는이 : <mago4@hanmail.net>

모임 대표 메일 관리에 대하여 :

앞으로 대책모임(강위원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모임)은  
<전여대협> 과 함께 결합하여 "비대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여대협>에서 관리하게 되는

"비대위" 메일이 따로 개설 되었다고 합니다.

참조 :

uni-action@hanmail.net

지금까지..

마고할미가 관리하다가 김○○이 관리해오던 모임의 대표 메일은

김○○의 친구 임병아(chema)의 관리로 넘어가게 되어

이에 인수인계를 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는 "평화" (\*\*\*\*\*) 입니다.

이번 메일은 모두 4명(마고할미, 감자, chema,자유)에게 발송됩니다..

강위원입니다.

보낸날짜 2003년 09월 30일 화요일, 낮 1시 22분 24초 +0900 (KST)

보낸이 "강위원" <kww513@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비대위의 일정에 맞추겠습니다.

전화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메일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 민주노동당 여성위에서

보낸날짜 2003년 10월 01일 수요일, 오후 5시 34분 55초 +0900 (KST)

보낸이 "마고할미" <mago4@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vitamin-x1@hanmail.net>, <dangdang1@naver.com>

함께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moim101@hanmail.net>

소속기관 freelancer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하여 알려드립니다.

오늘(2003.10.1)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임은경 차장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김현희의 응답기에 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내용 :

중앙당 "정치별 대책위"에서 여성위원회에 알리기를  
가해자 "강위원"이 당원이 아니라해도  
피해자나 신고자 둘 중 하나라도 당원일 경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비대위> 조사및 활동에 결합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 신고자 김현희 : 당원입니다.

<비대위> 쪽에서 직접 임은경 차장과 연락하는 것이 옳을 듯하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죄송합니다.

보낸날짜 2003년 10월 01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38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저의 큰 실수로 가해자와의 첫 면담이 무산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보낸 메일에  
시간이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방금 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가해자는 내일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더 잘 준비해서  
내일의 면담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담의 결과를 기다리셨을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TT.TT)

그럼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

가해자 1차 면담 보고

보낸날짜 2003년 10월 05일 일요일, 낮 3시 48분 54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일단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신없이 적어가지구... -\_-;;  
혹시 아래 면담 보고에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나, 삭제했으면 하는 것(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후 해야할 일>에 대해서 적혀있는데요..  
그걸 분담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분담을 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분담해야할 일들은 아래와 같구요,  
각자 맡았으면 하는 분공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해보았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후 해야할 일

- 1) 공개 대자보 작성 ----- 전체 정리 : 난리
  - 간단한 사건일지 정리 ----- 병아 님
  -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문제점 -- 난리
  - 이제까지의 해결과정 ----- 감자 님
  - 이후 해결과정(비대위 요구안 포함) -- 난리
  - 공개대자보를 올릴 홈페이지 목록 뽑아보기 -- 난리
- 2)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 및 논의 --- 난리  
(학습커리드 상담소와 함께 고민)
- 3) 실천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각자 고민하고 알아본 후 회의때 결정

=====

공개대자보 올릴 홈페이지들...  
보낸날짜 2003년 10월 05일 일요일, 오후 5시 20분 05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9jydh@hanmail.net>

강위원 성희롱 사건 공개대자보 올릴 홈페이지 목록을 좀 뽑아봤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더 올릴 곳이 있거나 성격상 별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시면  
비대위 메일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운동단체>  
한총련 <http://hcy.jinbo.net>  
교육학생연대 <http://edustu.net>  
전국학생연대회의 <http://yd.jinbo.net>  
학생행동연대 <http://sas.jinbo.net/>  
21세기진보학생연합 <http://21c.jinbo.net/>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http://stu.kdip.org/>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http://www.uredu.or.kr/>  
다함께 <http://alltogether.or.kr/>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http://www.unip.or.kr/>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http://cafe.daum.net/jsr14>

<여성운동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반미여성회 <http://www.banmiwoman.org/>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http://www.peacewomen.com>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한국여성의전화 <http://www.hotline.or.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uw.org>  
장애여성공감 <http://www.wde.or.kr>  
한소리회 <http://www.han-sori.org>  
여성환경연대 <http://www.ecofem.net>  
여성해방연대 <http://www.feminist.or.kr/>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http://www.kwfa.net/>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kwfa.net/>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http://women.kdip.org/>

<민족민주운동단체>

통일연대 <http://www.615tongilyoundai.org>  
민주노동당 <http://www.kdip.org/>  
보이지 않는 창살 <http://cafe.daum.net/nofree2003>  
범민련남측본부 <http://www.tongil-i.net>  
전국연합 <http://www.nadrk.org/>  
참세상 <http://www.jinbo.net>  
미군장갑차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 <http://www.antimigun.org/>  
한국청년단체협의회 <http://youthkorea.org/>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전국민중연대 <http://www.minjung.or.kr/>  
사회당 <http://www.sp.or.kr/>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범청학련 <http://bchy.jinbo.net/>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양심수후원회 <http://www.yangsimsu.org>  
양심수 넷 <http://yangsimsu.net/>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민족화해저주통일협의회 <http://www.jatong.org/>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eduhope.net/>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junnong.org/>  
장애인이동권쟁취연대회의 <http://access.jinbo.net>  
6.15청학운동연대 <http://cafe.daum.net/615youngtongil>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나라사랑*

=====

가해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낸날짜 2003년 10월 06일 월요일, 밤 12시 45분 26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공개사과문을 5일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아직 안보내서요.  
내용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확인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 난리

=====

※※  
비대위입니다.  
보낸날짜 2003년 10월 06일 월요일, 밤 12시 44분 33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받는이 <kw513@hanmail.net>

10월 5일까지 공개사과문을 써서  
비대위 메일로 보내주시기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군요.

공개사과문을 빠르게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

'사건일지' 정리본  
보낸날짜 2003년 10월 06일 월요일, 아침 07시 43분 18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난리씨! 수고 많았어요.  
면담보고 - 길기도 합시다. 꼼꼼히 읽고 정리해볼게요.  
날씨가 정말 쌀쌀해 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나도 감기증세가..

사건일지 파일은 한글 2002로 작업을 해서 97로 옮긴 것 하나 - 강위원 교정 - 1  
그리고 2002로 작업한 것 - 강위원 교정  
두개 보내드립니다.

97로 옮긴 게 제대로 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동생이 전에 해보니 잘 안되더라구..  
<자유>

=====

감자님, 난리님께 - 병아

보낸날짜 2003년 10월 07일 화요일, 새벽 01시 21분 02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이제야 모든 메일을 봤습니다.

제가 구성원으로 실감하고 있지 못해서인지, 대책위 메일과 여기에 등록된 제 메일만 확인했지 이곳에 들어와 볼 생각을 못하여 너무나 늦게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감자님.. 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그래요.

오늘 전화 안해주셨으면 이제서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구성원으로 부끄럽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알게모르게 소외라면 소외, 혼란이라면 혼란 뒀..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작용한 듯 싶습니다.

감자님의 꾸준한 챙김이 아니었음... 정말 고맙습니다.

수요일, 다 같이 만나면 제 현재(!)를 고백,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에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해자 면담보고를 첨부파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님이 쓰신 <가해자 1차 면담보고> 잘 읽었습니다. 한두가지 소소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만나기로한 날 말씀 드릴게요 (처음 만나는거라 벌써부터 떨립니다.. ^^)

난리님이 정리한 '할 일'에 <사건일지 정리 - 병아>라는 의미가요, 사건일지를 제가 다시 한번 해주었으면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수요일에 정리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가해자 1차 면담보고> 안에, 강위원이 5일까지 공개사과문을 정리해서 보내기로 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거 같은데,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쩍..

할 말이 많은 듯하였는데.. 막상 쓰려니 없네요.

수요일날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니.. 저도 복잡한 머리 최대한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

가해자1차면담보고(약간 보안)

보낸날짜 2003년 10월 07일 화요일, 낮 1시 28분 13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일단 병아님이 지적해주신대로

5일까지 공개사과문 작성하기로 했던거 추가했습니다.

가해자 1차 면담 보고는

전여대협에는 제가 보냈거든요.

대책모임 메일로는 병아님께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제 마고할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연락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연락하는것보다는

병아님께서 대책모임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지 않겠다고 판단되시면 다시 메일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제 밤에 강위원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전화기가 꺼져있더군요.

빨리 공개대자보를 작성해서 비대위 논의 후 밀고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수고하세요~

=====

공개대자보 개요 (안)

보낸날짜 2003년 10월 07일 화요일, 낮 3시 59분 30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공개대자보의 기본 개요를 적어왔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빠르게 메일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요를 정리하고 나서 분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 강위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공개하며

1.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공개하며

- 강위원 성희롱 사건의 접수, 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문제 및 심각성, 이 사건을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

2.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본 원칙

- 피해자중심주의, 가해자에 대한 입장,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입장 등 우리가 애초에 세웠던 해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3. 간략한 사건일지 (피해자가 작성한 사건일지 요약본)

- 그리 길지는 않되, 누가 보더라도 사건일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서술.

4. 강위원 성희롱 사건의 성격규정

5.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까지의 활동 과정

- 피해자의 개인적 해결 노력, 대책모임의 구성과 활동, 비대위의 구성과 활동 전반을 서술

6. 가해자 강위원에 대한 비대위의 요구안

- 비대위의 요구안 및 근거

7. 가해자 면담 및 지금까지의 상황

- 가해자 면담에 대한 짧은 보고, 가해자의 인식에 대한 비판지점, 가해자가 비대위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비대위가 다각도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비대위를 피하고 있는 지점

8. 또 다시 피해자와 비대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만한 강위원을 규탄한다!

- 그동안 강위원의 행동에 대한 문제점, 특히 비대위와 만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비대위의 요구를 무시한

데 대한 규탄

9. 이후 비대위의 활동계획 및 결의

- 각종 운동단체 홈페이지에 이 사건에 대한 보고문을 올림
- 강위원이 비대위의 요구안을 수용하도록 할 것
- 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근절해가기 위한 각종 노력 (여성단체/학생운동단체/민족민주운동단체들의 지지성명/공동성명 조직,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등)

10. 별첨 > 강위원 성희롱 사건일지 전문

[RE]공개대자보 개요 (안)

보낸날짜 2003년 10월 07일 화요일, 오후 4시 08분 40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데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제목 -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공개하며

내용은 아주 좋은데요...<자유>

강위원입니다.

보낸날짜 2003년 10월 08일 수요일, 새벽 03시 18분 10초 +0900 (KST)

보낸이 "강위원" <kww513@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데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길은 하나였습니다.

면담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내 책임을 통감하면서 견뎌내려고 했으나 앞으로의 삶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해 이렇게 폐만 끼치고 떠납니다.

사실은 할말이 많습디다.

그러나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허허롭게 떠납니다.

○○이에게 얼른 다 잊고 자기 길에서 잘 살라고 전해주세요. 그저 행복하길 빕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았습니다.

얘기드릴 것이 있습니다 - 난리

보낸날짜 2003년 10월 09일 목요일, 새벽 05시 31분 46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데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조금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유서 외에

저에게 쓰다만 글도 함께 있었다는군요.

저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10월 2일 면담에서의 제 행동(?)에 대한 불만인지 억울함인지가 있었다는군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다른 이에게도 한 적이 있는 듯 하구요.

또, 강위원 혹은 그 지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후 또다른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책회의 비슷한 것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계획을 다시 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예상을 해보고 준비를 해야할 것 같네요.

뭐... 일단은 우리가 정리하려고 했던 문서들을 정리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럼 또 다른 상황을 알게 되면 바로 메일에 올리겠습니다.

100인위로부터 온 답장입니다.

보낸날짜 Thu, 09, Oct 2003 04:48:05 +0900

보낸이 진여대협 <jydh@jinbo.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데이 uni-action@hanmail.net

----- Original Messages -----

From: WOM100 <swOM 00 |@jinbo.net>

To: jydh

Date: Wed, 08, Oct 2003 04:25:30 +0900

Subject: 100인위입니다.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100인위는 백서발간을 끝으로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접고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100인위를 유지시키고 상설적인 활동을 벌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안타깝게도 그러한 판단을 내렸 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강위원 성희롱 사건 백서 목차 (안) - 난리

보낸날짜 2003년 10월 09일 목요일, 낮 3시 22분 29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데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함께 받는데이 <9jydh@hanmail.net>

어چه 비대위 모임을 한 결과에서 <강위원 성희롱 사건 백서>를 만들기로 한 만큼,

일단 백서 목차를 대략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정 및 보완, 삭제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빨리 의견주세요~

목차를 일단 정리하고나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강위원 성희롱 사건 백서를 정리하며
  - 강위원 성희롱 사건의 접수, 백서를 정리하게된 이유 (강위원 성희롱 사건이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닌 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문제, 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문제 및 심각성에 대한 내용을 그리 길지 않게) 등
2.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본 원칙
  - 피해자중심주의, 가해자에 대한 입장,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입장 등 우리가 애초에 세웠던 해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3. 강위원 성희롱 사건일지 전문
  - 사건일지 전문을 다시 정리하여 넣되, 사건일지 중간에 보내온 메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첨가 / 강위원은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저질렀지만, 백서를 정리할 때에는 사건일지와 해결일지를 다소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강위원 성희롱 사건의 성격규정
5.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진행 경과 1 - 비대위 신고 전까지 (시간순 정리)
  - 피해자의 개인적 해결 노력, 피해자 지인들의 해결 노력, 대책모임의 구성과 활동
6.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진행 경과 2 - 비대위 구성 이후 (시간순 정리)
  - 전여대협으로의 신고, 비대위의 구성, 비대위 모임에 대한 적절한 보고문, 활동전반에 대한 정리
7. 강위원 성희롱 사건의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 처음에 논의해서 합의했던 계획서를 넣는 것으로
8. 가해자 1차 면담 보고
  - 최대한 대화체 정리
9. 가해자 강위원에 대한 비대위의 요구안 및 근거
10. 가해자의 자세 및 문제점 -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 진행 과정에서
  - 1차 면담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 진행 과정 전반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1,2,3,4... 이런 식으로 정리 / 여기서 가해자 메일과 반성문메일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하지 않을까...
11.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소하며
  - 사건 해결을 여기서 정리하게된 이유를 중심으로
12.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해결해오면서 들었던 모든 문제점과 인식을 바탕으로 총평을 내리는 식으로. 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문제,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을 겨냥(?)한 내용

=====

병아언니!  
 보낸날짜 2003년 10월 09일 목요일, 밤 10시 12분 18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네, 아래 목차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시고 얘기해주세요.

그리구요..  
 오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가 저희에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거냐는 것을 물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현희언니가 민노당 여위에 신고 비슷한 걸 했으니까요.

민노당 여위에서는 궁금해할 밖에요..  
 (저는 다른 간부에게서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현희언니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에 다시 얘기를 안하신 거 같더라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노당이 아니라 비대위 차원으로 진행할거고 이후 연대가 필요할 때 같이 하자는 내용을 현희언니가 민노당 여위에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할 거 같아요.

난리

=====

보고와 제안 등등  
 보낸날짜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새벽 03시 28분 09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  
 실수로 그만.. 장문의 글이 모두 지워지는 사태가!!!..... 한메일은 정말 적용하기 힘들군요.. 쩌.. 아.. 허망하여라.. 자.. 그럼.. 다시.. —;::;

난리가 백서 목록정리한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우선 내용을 생산해 내지 못하는 저로서는 난리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 난리가 지적한대로 강위원에게서 온 메일에 관한 비판지점을 밝혀주는 것은 읽는 사람에게 명확한 관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비대위의 입장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밝히게 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정리하게 된 경위 이것이 현재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난리가 표현한 '겨냥'에 적극! 동조!!! 합니 다!! ^^

이것과는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강위원과의 1차면담에서 저와 만났을 당시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노래방에서)과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누가 더 요구를 했는지 어찌구)에 관해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면담과정에서 이것을 지적한 감사언니와 난리를 판단을 믿습니다.

다만, 관점이 저를 '제2의 피해자'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간 사람에게 그런 언행을 하는 파렴치한 부분을 비판한 것인지 다시한번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제2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당사자인 저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담과정에서 행해진 그것 자체로 우리가 새롭게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동의하구요, 새롭게 쓰는 사건일지에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답변 남겨주세요.

#####

보고입니다.  
 오늘(9일) 저녁 8시경 박수기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위원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하고

계좌추적과 아이티... 뭐라고 하던데 제가 잘 몰라서.. ^^; 아무튼 강위원이 돈을 인출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면 추적이 가능하게 조치를 취했으며 일주일 지나도 찾지 못하면 정식으로 실종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박수기씨는, 혹시 강위원이 어딘가에서 생각을 거듭한 끝에 비대위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제게 진화를 한 것 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서로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박수기씨와 통화를 끝내고 비대위 메일에서, 난리에게 남긴 유서가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박수기씨에게 유서내용을 물었을 때 '어머니와 관한 얘기, 자신을 화장해 달라는 것, 지인들에게 남긴 글, 이석 사건 관련 한 얘기, 모금한 금액 총화 등'의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대위나 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글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수기씨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운동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 죽기 직전에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난리의 글과 크게 달라 당혹스럽군요. 강위원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유서를 발견한 사람이 박수기씨인데 말이죠. 그런 글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쩌면 우리가 각도를 달리해 고민해 봐야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제안입니다.

난리가 남긴, 현희언니가 다시한번 민노당에 연락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글에 관해서인데요, 애초에 연락을 한 사람은 현희언니였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 더군다나 현재 비대위(특히 OO이와 감자언니)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정도의 대표자의 비중을 가지고 민노당과 연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희언니가 민노당에 연락을 할 경우, 내용적 총화를 위해 OO이나 감자언니에게 또다시 적극적인 연락을 할 것이고, 현재 비대위의 내용과 다분히 거리가 있는 이 사안에 관해 두 사람이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듯합니다.

그래서 비대위 자체나 대책모임의 총화자 역할을 하는 제가 연락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요. 의견 남겨 주세요.

혁혁... 같은 내용으로 글을 두번 쓰려니 여간 어려운데 아니네요 ---;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구요,

우리 하루하루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다! ^^

=====

감자 생각

보낸날짜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38분 23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먼저, 난리가 내 놓은 백서 목차안에 동의합니다.

이미 지난번 비대위 회의 때 대부분 이야기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더 깊은 고민으로 '안'을 만들어낸 난리에게 감사하구요.

면담때 병아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물론 후자의 의미로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병아씨를 '제2의 피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민노당에 병아씨가 전화하는것에 찬성합니다.

현희언니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것 저것을 확인한 후

민노당과 연락해온 것 같은데, 그간 진행돼온 과정의

일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의 뜻이

전해질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현희언니랑 제가 통화할때 세세한 얘기는 다 못하고

큰 줄기만 말해왔기 때문에 ...

=====

RE: 난리입니다.

보낸날짜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42분 09초 +0900 (KST)

보낸이 "김OO" <dangdang1@naver.com>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난리가 실수(?)로 나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비대위로 넘깁니다. ㅋㅋ

-----원본메시지-----

보낸사람: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받는사람: "김OO" <dangdang1@naver.com>

참조:

날짜: 2003-10-10 11:34

제목: 난리입니다.

일단 OO언니의 제안은

너무너무 좋지만,

제가 그 날 서울에 없을 듯 하여 힘들 거 같아요.

다른 언니들은 같이 모여서 정리하면 좋을 거 같은데...

글구 저두 언니들이랑 같이 모여서 정리하면 좋을 거 같은데...

아무래도 힘들거 같습니다.

오늘 정도만 되어도 좋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병아언니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 면담보고에서 '제2의 성폭력'에 대해 제기한 것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정리할 때 잘 고민해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해결을 위해 나간 피해자 지인에게 한 행동으로서의 파렴치한 것이라는 내용은

당연히 정리해야할 것 같구요.

정리할때 넣을지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봐야겠지만

분명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박수기씨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남긴 글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글을 중간에 쓰다말았다고 하는군요.  
확실히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을 한총련 간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총련 간부와 현재 상당히 절그러운 관계에 있고 그 간부도 저에게 화가 많이 난 상태여서  
말을 서로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될거라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 글을 직접 받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메일에서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2일날 면담 후 강위원은  
비대위의 요구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다녔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전면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제가 한총련 간부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비대위가 백서를 정리할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총련 모 간부의 얘기를 전해들은 바 추측하기론  
현재 강위원 지인들은 공개가 되지 않는 것에 크게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서 정리와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에 대해서는  
역시 민감한 반응을 과도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강위원 지인들이 쉽사리 대응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강위원을 찾고나서 가능하겠죠.  
정 오랫동안 못 찾으면 어쩔지 모르는거지만요.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대응을 하고 전면전으로 나가게 되면  
강위원 성희롱의 또다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얘기를 듣자하니  
수배해제농성 때 수배 역할생에게 성추행한 것이 1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2번인지, 그 이상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요.

여튼 제가 알고 있는 상황까지 얘기드렸습니다.

=====

물론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보낸날짜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낮 12시 02분 29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강위원 지인들이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를 압박(?)할 수 도 있겠지요.

당장 중요한 일은 아니니 지금 현재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후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될지는 하나님도 모르지요(?)  
기회가 되면, 다른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 피해자의 생각이 중요하겠지요.

강위원 지인들이 법적 대응 운운할 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할꺼라라는 이야기를 하면, 더이상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전면전 선포등..  
그 전에 당신들에게 별로 좋지 않을 것임을 우리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강위원에게도 결코 좋  
은 일이 아니겠지요(?)

사건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

병야요~  
보낸날짜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낮 12시 55분 00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우선,  
감자언니께 부탁 한가지 더 드릴게요 ^^  
현희언니가 민노당 여부와 어떤 내용으로 만났는지(혹은 통화)를 간략하게라도 알고 싶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희언니와 통화를 한 사람이나 그곳 책임자 전화번호 좀... ^^;;

아래 난리의 글에 크게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어제 박수기씨와 통화를 끝내고 시간이 갈 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아래와 같은 통화내용만을 남겼습니다.  
단순하게 저의 이상한 기분을 밝히면,  
통화 당시, 박수기씨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었구요(통화 후 확인한 난리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지요) 사건당일과는  
많이 다른 평온을 찾은 듯한 목소리에서도 사실 수상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느낌, 기분이라 하더라도 또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 정도는 우리 모두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 굳이 밝힙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주세요 ^^

그리고 ○○이의 집에서 작업하는 것은 나에게도 너무 좋은 제공이지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집안 사정상의 이유  
로...  
집중력 높은 새벽에 주로 정리를 해나가야지요. 점...

모두들 힘찬 하루 되세요!

=====

[답장] 메일을 보고,  
보낸날짜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4시 40분 12초 +0900 (KST)  
보낸이 "마고할미" <magod@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의숙" <vitamin-x1@hanmail.net>



함께 받는데 <uni-action@hanmail.net>  
소속기관 freelancer

감자..

답장을 보았다네..

나는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서는..

지난번(10월 1일이었던가?)에 메일로 알렸던 민주노동당 쪽으로부터 온 연락에 대해  
<비대위>와 민주노동당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하여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차장 임은경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 연락처 (02)761-1333 민노당 여성위 --- 메일 womenkdlp@hanmail.net  
--- 개인 손전화 : 019-425-2799

<비대위>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전여대협>의 다른 활동가로부터 강위원의 소식을 들었다고 전하더군요.  
상황 파악은 계속하고 있겠지만

현재 피해자가 더이상 아무것도 진행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그 쪽에서도 그냥 기다려보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차후에라도  
정식 문서로(이메일이든) 요청이 오게 되면 공식적 대책에 나서겠다고 그러더군요.

[참고 : 이번 메일은 감자, uni-action 두군데에 발송하는 바임]

=====

백서 분담을 정리해보았어요.  
보낸날짜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 06분 50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데 <uni-action@hanmail.net>

백서 분담을 나누어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맡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맡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1. 강위원 성희롱 사건 백서를 정리하며 : 난리  
- 강위원 성희롱 사건의 접수,

백서를 정리하게된 이유 (강위원 성희롱 사건이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닌 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문제, 운동사회 내 성폭력  
의 문제 및 심각성에 대한 내용을 그리 길지 않게) 등

- 2.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본 원칙 : 누가 해도 상관없을거 같은데요.. 지원자가 있으면 지원자  
가 하는것으로 하죠. ^^ 지원자가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당~

- 피해자중심주의, 가해자에 대한 입장,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입장 등 우리가 애초에 세웠던 해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 3. 강위원 성희롱 사건일지 전문 : 병아 언니  
- 사건일지 전문을 다시 정리하여 넣되, 사건일지 중간에 보내온 메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첨가 /  
강위원은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무수한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저질렀지만, 백서를 정리할 때에는 사건일지와  
해결일지를 다소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4. 강위원 성희롱 사건의 성격규정 : 난리

- 5.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진행 경과 1 - 비대위 신고 전까지 (시간순 정리) : 병아 언니  
- 피해자의 개인적 해결 노력, 피해자 지인들의 해결 노력, 대책모임의 구성과 활동

- 6.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진행 경과 2 - 비대위 구성 이후 (시간순 정리) : 난리  
- 전여대협으로의 신고, 비대위의 구성, 비대위 모임에 대한 적절한 보고문, 활동전반에 대한 정리

- 7. 강위원 성희롱 사건의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 처음에 논의해서 합의했던 계획서를 넣는 것으로

- 8. 가해자 1차 면담 보고 : 난리 & 감자 언니가 보충  
- 최대한 대화체 정리

- 9. 가해자 강위원에 대한 비대위의 요구안 및 근거 : 난리 (& 감자 언니가 보충)

- 10. 가해자의 자세 및 문제점 -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 진행 과정에서 : 감자 언니  
- 1차 면담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 진행 과정 전반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1,2,3,4.. 이런 식으로 정리 /  
여기서 가해자 메일과 반성문메일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하지 않을까..

- 11.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소하며 : 병아 언니  
- 사건 해결을 여기서 정리하게된 이유를 중심으로

- 12.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 난리  
-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해결해오면서 들었던 모든 문제점과 인식을 바탕으로 총평을 내리는 식으로  
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문제,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을 겨냥(?)한 내용

=====

그리고 백서 정리할때요..

보낸날짜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저녁 6시 18분 36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데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우선순위를 두고 정리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말하자면, 빨리 내용을 정리해야할 것부터 정리해가자는거죠.

현재로서는 계속 얘기했던 것과 같이,  
아래의 몇가지를 먼저 정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8. 가해자 1차 면담 보고  
(9. 가해자 강위원에 대한 비대위의 요구안 및 근거)  
10. 가해자의 자세 및 문제점 -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 진행 과정에서

11.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소하며
12.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이걸 먼저 정리해서 우리 내에서 정리를 해야될거 같네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세요~

=====

넵!  
보낸날짜 2003년 10월 11일 토요일, 밤 12시 32분 08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난리가 분배(?)한 것에 동의하구요,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언제까지? ~;;)  
그러나 사건해결을 여기서 정리하게 된 이유를 쓰는게 참으로 힘들 듯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상당히 감정적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정리한 글을 검토할 때 문제를 가차없이 말씀해 주시고  
도저히 병아기 쓴 글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잘라 주실쇼. ~;;

그리고 OO아,  
최초의 사건일지(수정 전)를 나에게 다시 보내줘~

참!  
현희언니에게는 민노당 여성위와 연락을 취하는 부분에 관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노당 여위에 메일을 보낼 때는 uni-action을 사용하겠구요,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우리 결정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세요!

=====

OO아~  
보낸날짜 2003년 10월 11일 토요일, 새벽 01시 04분 42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엇! 그래? ~;;  
중요한거는 아니구,  
숙희가 쓴 부분 첨가하려고.  
그 문제의 마스터베이션 쫓나 한다는 부분 말야. ~;;  
대충 기억 더듬어서 쓰는 것보다는 숙희가 쓴 그대로 첨가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한 문서라도 있으면 타이핑해서 보내줄라?

=====

박수기씨와의 통화  
보낸날짜 2003년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04분 16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오늘 아침 10시 반경 전화가 왔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받았는데요, ~;;

지금 강위원의 가족(형님과 어머니)가 알게 됐다고 합니다.  
형님이 어제 저녁(추정)에 사건경위와 현재의 상황을 듣고 오늘 새벽 4시경 박수기씨를 찾아와 상당히 흥분하여 어떻게 된거냐고 재차 묻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OO이의 신분이 노출된건데요,  
그 형님이 '그 여자애가 안경끼고 사진찍는 친구 아니냐?'고 물었답니다. —; 박수기씨는 형님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박수기씨도 어떻게 가족들에게까지 이런 얘기가 들어갔는지 자기도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저 또한.. 쟈..  
지금 강위원을 가해자, 이 친구를 피해자로 규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며, 이 일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좀더 예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하자 박수기씨는 죄송..이라는 말을 하려다 자기는 민가협쪽 일을 잘 몰라서 자기도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말로 추정컨데 아무래도 민가협의 어떤 이가 말한 듯 합니다. —;

이런 참..내.. 어이없는 상황이라니요.  
아무튼 지금 OO이에게 연락처를 우선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은 해줬습니다만.  
모두들 조심하시고 조심해 주시고.  
빠사!!!!!!

=====

병아 보렴  
보낸날짜 2003년 10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00분 32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그 때의 시간이 새벽 한 시쯤이었는데.. 강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좀더 사람들이 가고 정리를 하려고 할 즈음이었다. 그 자리에는 김OO의 친구들 즉 나를 비롯해 김미성, 고광희가 있었고, 수배자들 유영업, 이산라 등도 함께 있었다.  
강위원은 술자리에 앉자마자  
“누구는 애인하나도 없이 낮에 화장실에서 마스터베이션이나 쫓나하고...” 라는 말을 꺼냈을때 당황스러웠다. 그 자리엔 나이 어린 한총련학생 여후배들과 함께 후원회 여회원이 세명이나 있었던 자리이다.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마스터베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아무 꺼림없이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될뿐더러 여성에 대해 고려하는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다.  
마스터 베이션 이야기를 시작해서 후배들에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강위원이 김OO의 이름을 꺼냈다.  
“OO이는 안 왔어?”  
“네.. 못 왔는데요..”

그 다음부터 강씨는 김씨를 계속 거론하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이 때문에 힘들다’, ‘○○이 그년 때문에 괴롭다’

김씨의 친구이기 이전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해진 우리는 강씨를 말했다.

“왜 있지도 않은 사람 말을 하고 그래요?”

“왜 우리 친구를 욕해요?”

그럼에도 강씨는 계속적으로 김씨에 대해 말을 했다.

“김○○은 마녀야”

“○○이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야”

@ 이 내용은 '대책모임' 받은 편지함 처음에 있다.

6월 5일 상황이 더 궁금하면 대책모임 메일로 가면 된다. 투쟁!!!

=====

[RE] 의견 : 일단 먼저..

보낸날짜 2003년 10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31분 01초 +0900 (KST)

보낸이 "마고할미" <mago4@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chema@naver.com>

함께 받는이 <vitamin-x1@hanmail.net>, <uni-action@hanmail.net>

소속기관 freelancer

임병아에게 : 수고가 많으시구먼.

일단 먼저 피해자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비대위>의 회의를 거쳐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민주노동당 여성위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봄.

그런 확인 절차를 이미 거치고 내린 결정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마는

나의 노파심에서..

그리고 한가지 의문은

[100인위]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취소되는 것인지?

답신 기다리겠음..

\* 덧붙임 : 이번 메일은 임병아, 감자, uni-action 이렇게 3군데로 발송 함.

-----[ 받은 메일 내용 ]-----

제목 : 병아예요.

날짜 : Sat, 11 Oct 2003 00:41:45 +0900 (KST)

보낸이 : "임병아" <chema@naver.com>

받는이 : <mago4@hanmail.net>

민노당 여성위 관련하여 언니께서 보낸 메일 잘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두 여유가 없어

제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

지금 바로 메일 보내겠습니다.

내용충화도 가능한 빠르게 하겠구요

얼른 감기 나오세요!

=====

[RE] 의문.

보낸날짜 2003년 10월 11일 토요일, 낮 1시 00분 11초 +0900 (KST)

보낸이 "마고할미" <mago4@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함께 받는이 <littlepool@hanmail.net>, <hjagnes75@naver.com>, <dangdang1@naver.com>, <sweated@hanmail.net>,

<vitamin-x1@hanmail.net>, <juiy80@hanmail.net>, <>null93@hanmail.net>, <esue@dreamwiz.com>, <chema@naver.com>

소속기관 freelancer

피해자에 관해 주변에 말하고 다닐 사람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인물은

바로 강위원 본인일 것이다. 함부로 떠들고 다녔음이 분명하고..

그 주변에서 "약해지지 말라"고 위하는 척 하면서

이번 일의 해결을 힘들게 만든 강위원의 후배들이 있다.

"민가협이 어떤 이가 가족들에게 말한 듯" 하다고 한

임병아의 지레짐작은 옳지 않다고 본다.

피해자의 지인들 중에도

그 쪽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절대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하지만

임병아 개인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본다.

\* 덧붙임 : 이번 메일은 uni-action과 대책모임(9인)에게 발송함.

## 가해자 1차 면담 보고

면담 일시 : 2003년 10월 2일 낮 1시

### 글 목차

- 가해자의 발언 정리 (가해자의 발언에 대한 비대위의 핵심적인 비판지점 포함)
- 1차 면담 결과
- 1차 면담 평가
- 이후 해야할 일

### I. 가해자의 발언 정리

비대위는 가해자가 스스로의 가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말을 우선 듣고자 했다. 그리고 가해자의 발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가해자를 비판할 지점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기하는 과정이 있었다.

비대위는 몇가지 질문을 가해자에게 던졌는데, 이에 대해 가해자가 거기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 사건 해결의 과정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빼고 정리한다.

#### \* 그동안 가해자 자신의 생각과 행동, 고민 과정 1

대책모임이 있는지 모르다가 '메일을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메일을 보게 되었다. 메일 확인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다. 당시 목포교도소(목포지역 구속자 관련)에 있었고 (대책모임의 메일을) 피한 것은 아니었다. 국정원에서 나의 메일내용을 수시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일의 내용을 항상 다른 곳으로 옮긴다. 대책모임의 내용은 옮겼는데, 메일 주소는 못 옮겼다.

대책모임의 전화와 메일을 받고 난 후 피해자의 메일과 전화를 받았다.

당시 나는 스스로의 잘못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나도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의 메일을 피해자 개인 메일로 보냈다.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공부와 상담 등이 필요하므로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9월 중순경 마음을 정리하고 이는 선배 몇 명에게 상담을 했다.

상담하면서 선배에게 '성희롱은 당사자(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문제를 떠나 굉장한 모욕이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반성문이란 표현을 처음 쓰게 되었다.

#### \*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2번 보낸 후 대책모임으로 반성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책모임과 피해자의 지인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성희롱 가해 사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후) 참 힘들어서 조인을 구하였다. 그러나 조인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모임과 연락해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단했다.

스스로 고민이 안 풀어졌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을 쓰거나 행동을 하는데 있어 무서워졌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반성문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중에, 비대위의 전화를 받았다.

#### \* 그동안 가해자 자신의 생각과 행동, 고민 과정 2

잘못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지금도 정확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할말이 없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잘 몰랐다. 내가 그 친구가 되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애시당초에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도 정말 성희롱 당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선을 다했어야 할 친구인데..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 나의 성희롱 가해사실을 들었을 때에는 스스로 감당이 안됐었다. 당시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잘 해결해보자고 다독여주기도 해서 고마웠다.

하지만 당시에는 억울했다. '피해자도 정말 성희롱 당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은, 뒤늦게 맞은 기분이기도 했고, 나에게 잘한 피해자한테 그러면 안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었고, 왜 이런 관계가 되었단가 그런 고민들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다.

내가 '남녀문제'로 오해를 한 것 같다.

옥중에 있을 때 피해자가 나에게 면회를 자주 왔고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출소한 이후 2001년경 내가 오해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피해자한테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

#### \* 성희롱 가해 사실에 대한 확인

올해 초 개혁당 최용철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제기했을 때에는, 당시의 의식수준에서 스스로 감당이 안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못받아들였다.

4월달에 피해자 집에 간 것도 잘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해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했었다.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썼을 때에는 정직하고 싶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답이 올 줄 알았다. 또 대책모임에 피해자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

('스토커' 운운 발언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그에 대해서는 자신의 심각한 잘못을 처음엔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스토커' 발언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한 것임을 비판했을 때, 비로소 겨우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의 지인 '파씨'가 가해자에게 연락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질문)

9월초 파씨의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파씨가 나의 성희롱 사건 때문에 전화한지 모르고 연락을 안받았었다. 같이 설악산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나의 상황은 설악산에 갈 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다시 닿았고, 반성문을 쓰라는 파씨에게 반성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 \* 지금 심정

변명이나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질병이라고 규정한다.

스스로에게 운동의 철학과 신념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왜 나의 행동에 대해 사고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니 스스로 오만했던 것 같다.

이제까지 살면서 도덕적 문제로 추궁당한 적이나 비판당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좀 무섭다. 왜냐면 이후에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연세도 있고 해서 결혼도 해야겠구나 생각하는데, 살다가 이런 문제를 부인한테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있어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까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왔던 것도 같다.

전여대협에 상담을 할까 생각도 했었다.

강연다니면서 새내기들한테 여성 관련 얘기도 했었으니 영향도 많겠구나 정치적 계산도 했었다.

97년 이석치사사건 관련한 돈문제 만큼은 정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대책모임의 연락을 받은 이후로는 이 일도 위임을 해주고 정리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일을 해놓고 운동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공부를 해야할지,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해야할지... 어쨌든 비대위가 있으니 비대위가 요구하는대로 할 생각을 하고 왔다.

그동안 지인들에게 상담이나 조언을 했을 때,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후배들은 '왜 약해지려고 하는가'라는 말을 했었다. 후배들의 그런 말은 도움이 안되었던 것 같다.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비대위가 요구하는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이 자리에 왔다.

현재 내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각오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비대위가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 2년간 외국에 나가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이제는 7년이란 시간동안은 이 땅에서 책임져야할 것들을 책임지겠다.

### \*\*\* 가해자의 발언에 대한 비대위의 핵심적인 비판지점 \*\*\*

#### 1) 성희롱 가해 과정, 성희롱 해결 과정 전반에 있어 가해자는 자기중심적이었다.

자신의 성희롱 가해사실을 '남녀관계'로 규정하고 대대왔던 것, 피해자를 스토킨으로 몰면서 자신의 성희롱 가해사실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피해자를 이용한 것 등 성희롱을 저지르는 전반의 과정에서 가해자는 극히 자기중심적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해왔던 노력도 자기중심적인 가해자의 모습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스스로 반성문을 쓰려고 했으며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조차 가해자는 피해자와 대책모임이 가해자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간이 끌어질수록 피해자가 더욱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시기를 정하고 방법을 정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가해자의 모습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었다.

#### 2) 가해자의 성희롱은 운동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가해자는 그동안 자신의 운동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던 운동의 문제점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바라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 피해자를 역으로 스토킨으로 몰기까지 하였다.

#### 3) 정말 힘든 이는 피해자였으며, 피해자를 힘들게 한 당사자는 가해자이다.

가해자는 면담 초반에 자신이 매우 힘들었음을 얘기했다. 하지만 위에서 얘기했듯, 피해자의 고통을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에 불과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정말 힘든 이는 피해자였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와 알고 지낸 7년간의 세월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렸다. 또한 정작 이 사건에 개입된 모든 이들을 힘들게 한 당사자는 바로 가해자임을 비판하였다.

#### 4) 가해자는 이제까지의 체면과 계산 모든 것을 버려야한다.

이제까지의 모든 변명은 무의미한 것이다. 정말 가해자가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살고 싶다면 이제까지 체면치리기에 급급했던 모든 모습을 버리고 철저히 반성하여야한다. 반성하고 새로 거듭나는 것이 다시 사는 길임을 강조했다. 가해자가 그런 결심을 했을 때, 비대위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얘기했다.

#### 5) 비대위가 가해자의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성격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줌.

- 친밀함을 이용한 성폭력

- 운동사회 내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 가해자는 학생운동사회에서는 영향력 있는 존재이며, 민족민주운동사회에서는 진보적 인사로 인식되는 사람으로서 운동사회에 성폭력적인 문화를 조성

- 가해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가해자를 좋아했다는 식으로 가해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주변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합리화하여 피해자를 매도함으로써 상당한 모욕감을 줌.

-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

- 피해자 뿐 아니라, '사실'을 포함한 피해자 주변의 지인들에 대한 2차 성폭력과 상당한 분노, 충격을 안겨줌

- 피해자에게 운동사회와 사람, 동지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질망을 안겨줌.

- 특히 평소 '여성'에 대해 진보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얘기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

-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를 바꿔보고자했던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재차 성폭력을 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피해자의 사건 해결 노력을 차단

- 성희롱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함

- 장기간에 걸친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 &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2차 성폭력과 심리적 고통

- 피해자가 그동안 가해자에게 동지애적 의지로 감옥생활을 담보했던 것 등을 가해자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다)

## II. 1차 면담 결과

비대위는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 ① 공식적인 공개 사과문

-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무엇을 반성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지점(단지 가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과 사고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 서술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단체에 대한 사과

운동사회 내 성희롱적인 문화를 조성해온 가해자로서의 반성

앞으로의 구체적인 혁신과제와 실천과제 및 계획

위 사항을 지킬 것에 대한 약속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

- 공개 사과문은 1차적으로는 비대위, 2차적으로는 피해자가 검토한 후 불충분했을 때는 재작성을 요구한다.

- 공개 사과문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하기에 부적합할때에는 비대위 차원으로 다시 재작성을 요구한다.

- 공개 사과문은 한총련, 전여대협, 양심수후원회, 보이지않는창살 등의 홈페이지를 비롯해, 학생운동단체, 민족민주운동단체, 여성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② 활동 정지

- 가해자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총화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운동활동을 정지한다.  
-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간은 7년

#### ③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 한국성폭력상담소 정확한 시기와 내용은 비대위와 상담소의 논의 및 조정 이후 공지.

#### ④ 실천활동

- 가해자 재교육과 함께 실천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진행한다.  
- 구체적인 실천활동은 추후 공지. 실천활동은 서울 혹은 광주에서 진행한다.  
- 기간은 3개월 (이 3개월 동안 활동 정지, 실천활동,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 ⑤ 학습

- 구체적인 커리 추후 제출  
- 기간은 3개월

#### 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피해자의 주요 활동 근거지 및 거주지에는 가해자의 통행을 금지한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몇 곳을 포함)  
- 피해자의 전화나 메일 등으로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가해자가 나타나면, 가해자는 무조건 피해자를 피해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 ⑦ 정기적인 확인

#### ⑧ 가해자에 대한 재면담(총화)

- 가해자가 공개사과 이후 일정시간을 두고 위의 재반과정(활동정지,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천활동, 학습 등)을 진행한 후, 가해자를 재면담한다. 이는 가해자가 성희롱 가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교육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가해자 재면담을 하기 전에 먼저 가해자가 그간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느끼고, 반성했으며, 재교육했는지에 대해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가해자가 제출한 문서는 웹상에 올린다. 공개대자보를 올렸던 홈페이지들에 올리는 것으로 한다.

가해자는 위 비대위의 요구에 대해 모두 수용했다.

가해자는 아직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요구안 중에서도 공개사과문을 어떻게 써야할지에 대해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가장 어려웠다.

그리고 위와 함께 가해자 스스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던만큼 스스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 III. 1차 면담 평가

- 가해자에게 일단 이제까지의 태도에서 탈피시키고 비대위의 요구안을 전적으로 수용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중요한 것은 이후 가해자가 비대위의 요구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일이다.  
- 또한 아직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후 가해자에게 하나씩 각인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IV. 이후 해야할 일

#### 1) 공개 대자보 작성

- 간단한 사건일지 정리  
-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문제점  
- 이제까지의 해결과정  
- 이후 해결과정(비대위 요구안 포함)  
- 공개대자보를 올릴 홈페이지 목록 뽑아보기

#### 2)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 및 논의

(학습커리도 상담소와 함께 고민)

#### 3) 실천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2003년 10월 06일 월요일, 아침 07시 43분 18초 +0900 (KST)\*

피해자는 학생운동을 뒤늦게 시작했다. 1997년 당시 피해자는 모 여대 인문대에서 부학장직장을 맡고 있었고, '5기 한총련 출범식' 이후, '이석 이종권 치사사건' '한총련 마녀사냥' '류재을 열사, 김준배 열사의 죽음' 등 일련의 사태를 접하며 충격을 받았음. 깊은 죄책감과 부채의식에 빠져있던 피해자는 당시 한총련 의장 강위원에게 1997년 8월경에 처음 편지를 썼음. 강위원 수감 전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었고, 편지를 주고 받고, 책을 보내고, 면회를 통해서 서로 알게됨. 강위원과 본격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는 한가지 다짐을 함.

작은 힘이지만 한총련의 무거운 짐을 함께한다, '동지적 믿음'과 '동지적 의리'로 출감까지 꾸준히 연락한다.

강위원은 2001년 7월 말에 출감하였다.

### < 강위원 성희롱 사건일지 >

2003년 1월 9일 ~ 9월 15일 까지

#### ▶ 2003년 1월 9일 목요일

당시 수배중이던 가씨(피해자 친구)가 밤 10시 30분 이후 피해자에게 술잔잔 하자고 전화함. 당시 강위원, 나씨, 다씨(당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운동 단체 간사이자 피해자 친구)함께 함. 여러 이야기가 오가다 2002년 개혁국○○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최용철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 조직 내부도 '성희롱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 말함. 이에 강위원이 술잔을 얹으며 "뭘 저런 년이 다 있어"말하고, "동지에 대해 합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남.

(8월 20일 이후 다씨 증언)

그날 밤 다같이 운동 단체 사무실로 왔고, 나와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잤는데, 피해자가 한숨도 자지 못하는 걸 보고, 다음날(1월 10일) 가씨와 피해자가 나간 후, 강위원씨에게 나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았다. 강씨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책도 보내주고 편지도 주고받은 사이이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여성동지들이 편지를 보내주고 했다. 나 좋다고 하는 여성동지들도 많은데 누구 혼삿길 망칠 일 있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최용철 사건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동지를 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난 동지들이 광주에 아파트도 마련해주고."라고 하였다. 또한, 당시 입고 있던 자신의 옷과 목도리를 가르키면서는 '동지들이 열심히 운동하라고 마련해준 것'이라며 '내가 직접 산 것은 없다, 이렇게 좋은 동지들인데 동지들을 욕하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 ▶ 4월 1일 (화요일) - 4월 2일(수요일)

자정이 넘은 이후 강위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함. 술을 많이 마셨는데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함. 피해자는 나갈 수 없다고 말함. 당시 강위원과 피해자는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다음날(4월 2일)에 생각하니 강위원이 민망할 수 있겠다고 느껴 가벼운 안부 인사를 문자로 보냄. 강위원이 바로 전화함. 여러 이야기를 하다 "난 술 마시면 여자 생각하는데, 넌 남자 생각 안나?" 라고 이야기함. 이에 피해자는 "남자 생각? 옛사람 생각나지요 그냥 욕하고 잔다" 고 말함.

#### ▶ 4월 14일 월요일

이날 11기 한총련 의장에 정재욱씨가 당선됨. 강위원에게 새벽 2시 30분경에 전화음. 선거 마치고 경회대를 내려오는데, 감옥살, 출소 이후 2년의 삶이 떠오르다면서 피해자가 생각난다고 함. 40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피해자는 지난 1월 일을 상기시키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욕을 할 수 있냐" 고 말함. 그러자 강위원은 전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술 한잔 하자며 "xx야! 잘할게"라고 말함.

어이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동지가 기쁜 일(정재욱 당선)로 전화를 해서 술자리에 나감. 당시 나씨, 그의 애인 라씨 함께 함. 이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피해자, 나씨, 강위원 함께 술을 마심. 해가 뜨고 술취한 동지들을 그냥 집에 보낼 수 없어 피해자 집에 함께 음. 나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갑자기 강위원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음. 다시 나씨에게 침대 밑에서 자라고 하

고 피해자에게 함께 침대에 누워 안아달라고 요구함. 피해자는 사춘 동생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감. 아침 9시경 강위원은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검색해야 한다며 컴퓨터를 켜줄 것을 요구, 인터넷 검색을 하며 옆에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음.

#### ▶ 4월 24일 목요일

피해자 핸드폰에 부계중 전화가 와 있어 번호를 확인하니, 새벽 4시 30분경 강위원한테 온 전화였음. 오전 11시 30분경에 강위원에게 전화함. "무슨 일이 있었나?"고 피해자가 묻자, 머쓱하게 "너네 집 갈려고 했나보지" 말함.

#### ▶ 5월 15일 목요일 (피해자 선배 차씨 증언)

차씨는 강위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함. 친한 선후배 관계이더라도 새벽 3~4시에 전화를 한다거나, 술 마시고 '생각이 난다'는 등의 전화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음. 이 당시 차씨는 4월 14일 사건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다만 후배인 피해자가 격정되어 강위원과의 관계에 분명한 선을 긋도록 중용하였고,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강위원에게 확답을 받고자 함.

[5월 15일 상황]

피해자의 또다른 선배 카씨와 강위원이 약속을 했던 5월 15일(연대 대동제 기간)에 우연히 피해자와 차씨도 동석하게 되었음. 강위원은 한양대 특강이 늦어져 11시경에 약속 장소인 연세대 앞으로 왔고, 이미 다소 술을 마신 피해자를 먼저 보낸 후, 차씨는 다른 약속 때문에 먼저 일어난 강위원을 따라 나가 대로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함. 다음은 대화 내용임  
차씨 : "xx(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위원 : "이미 6개월 전에 충분히 말했습니다."  
차씨 : "그렇다면 새벽에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강위원 : "그런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이어 나갔고, 차 모씨는 강위원에게 피해자한테 더 이상 상처주지 않기를 부탁하였음. 대화 도중 강위원은 본인을 좋아했던 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이 결혼할 사이인 것처럼 가족들과 주변에 알렸던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그 여자의 가족까지 만났었다는 이야기를 함. 덧붙여 본인은 마음에도 없었는데 김치국부터 마셨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 당시의 피해자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유추하게 함.

#### ▶ 5월 31일(토요일) - 6월 1일(일요일) - 2차 가해 행위

5월 31일 연세대에서 '정치수배해제모임' 후원 주점이 있었음. 후원 주점에 온 강위원이 피해자에게 "왜 나를 피하냐"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농성을 떨고 추근뒀음. 6월 1일 아침에 강위원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함. (평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 소속 운동 단체 동지 아씨와 당시 수배자 동지 자씨 있었음) 담배를 주고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강위원은 "너 이리 좀 봐봐" 라고 함. 이에 피해자는 "미치겠다" 하고 다시 돌아서는데 피해자 뒤등수에 대고 "저년이" 라고 욕함. (피해자는 동지들 앞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낌)

#### ▶ 6월 3일 화요일

피해자가 강위원에게 전화함. "또 나한테 욕한거 아냐" 라고 말하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음.

#### ▶ 6월 5일 목요일 (피해자 친구 마씨와 다씨 증언 종합) - 2차 가해 행위

이날은 5월 축전 때 열렸던 '정치수배해제모임 후원 주점' 뒤풀이를 연세대에서 하는 날이었다. 수배자들과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운동 단체 사람들이 모여 술자리를 가졌고, 밤 11시쯤 사람들이 서서히 집으로 갔으며, 절

은 회원들은 수배자들과 늦은 시간까지 연세대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친구 마씨와 다씨는 운동 단체 회원 언니가 늦은 밤에 집에 간다고 해서 연세대 교문 앞까지 배웅을 하고 다시 술자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어느새 강위원도 와 있었다.(피해자의 친구들 마씨와 다씨를 비롯해, 바씨가 있었고, 당시 수배중이던 수배자 동지들도 함께 했다.)

그 때의 시간이 새벽 한 시쯤이었는데.. 강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강위원은 피해자 친구들이 술자리에 앉자마자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마스터베이션 운운) 그 자리엔 나이 어린 한총련 소속 여학생들과 운동 단체 여성 회원이 세명이나 있었던 자리였다.

피해자 친구들은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이야기를 주저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었고, 여성에 대해 고려하는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계속 후배들에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하던 강위원은 피해자의 이름을 꺼냈다.

“xx이는 안 왔어?”

“네.. 못 왔는데요..” (마씨)

그 다음부터 강씨는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xx이 때문에 힘들다’, ‘xx이 그년 때문에 괴롭다’

피해자의 친구이기 이전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해진 피해자 친구들은 강위원을 말했다.

“왜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마씨)

“왜 우리 친구를 욕해요?” (바씨)

그럼에도 강씨는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xxx은 마녀야”

“xx이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야”

강씨가 많이 취하기도 해서,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이 났는데,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이런 말들은 명백히 피해자가 강위원을 아주 못살게 하여 괴롭히는 '마녀'로 비취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마씨를 비롯해 다씨, 바씨는 그 동안 강씨의 행태들을 직접 보았고, 피해자에게 들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강씨의 말에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

문제는 강씨도 다·마·바씨가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모르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절친한 친구들 앞에서 그런식으로 표현을 하고,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수배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가 분명하고, 강씨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수배자들) 앞에서 좀더 위신을 세우려는 의도도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새벽 3시 30분쯤 모두들 연세대 수배해제 사무실로 올라와 쉬려고 할 때, 바 모씨와 강위원은 짐이 같은 방향이니 함께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강씨는 사무실 모퉁이에 걸터앉아 마씨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xx야, 손 한번만 잡아줘”

“빨리 가세요”

“손 한번 잡아주면 갈게”

이 말들을 몇 번 더 반복했고, 이에 답답해진 바씨가 ‘그냥 한번 잡아줘’ 했으며 마씨도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악수를 했다.

그러자 무슨 목적이라도 달성한 것 마냥 강위원은 일어나 짐으로 향했다.

자신이 내던진 말이 무안했는지 겸연쩍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무마시켜보려는 강씨는 여성을 자신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하려는 마음이 밀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6월 26일 목요일

피해자는 1997년 모 여대에서 인문대 부학생회장을 맡고 있었음. 이날 피해자는 97년 당시 인문대 학생회장이자 한총련 대의원이었던 친구 사씨를 만날. 그동안 강위원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자, 갈등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씨는 “너 성희롱당한거야” 라고 말함. 피해자는 자신이 성희롱 피해자임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됨. 이후 사 씨는 어떻게든 강

위원과 만날 생각에 사전 작업의 성격을 띠는 형식으로 친근하게 강위원에게 전화함.

새벽 1시 30분경 강위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고, 능청을 띠는 강위원에게 피해자는 서서히 강도를 높이면서 이야기함.

“위원장!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위원장!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 강위원은 순간 당황하며 “내가 너하고 결혼해야되니?”, “감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했다.”, “그래 까놓고 이야기하자. 내가 너에게 책을 보내라고 했나? 면회를 오라고 했나?” 라고 함.

책 보내고 면회간 것이 피해자가 오로지 강위원이란 ‘남자’를 만나기 위한 행동으로 치부된 상황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피해자는 황당했으며, 동지에게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듦. 피해자는 “야! 그만하자”하고 전화를 끊음.

▶ 7월 31일 목요일 (피해자 친구 사씨가 가해자 강위원을 만나고 경리한 글임)

나는 강위원씨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97년 그가 5기 한총련 의장이었다는 것과 당시 나는 대의원이었다는 것에 동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강위원씨를 만났을 당시에는 이번 성희롱 사건의 해결 지점도 그러한 동지애적 믿음을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강씨와 만난 일을 이제 되돌아보면, 스스로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든다. 동지애적인 감정에 휩싸여 좀더 객관화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6월 26일 친구(피해자)에게 사건 얘기를 들은 후로 강씨에게 몇 번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런 일로 만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강씨가 회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볍게 안부를 물으며 한번 만나자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 연락이 없자 그 전에는 간단한 안부 문자에도 바로 전화가 왔었다.) 이후 어떻게든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날 바로 전화가 왔다. 그리하여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 신촌에서 강위원씨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강위원씨가 수감중일 때, 피해자인 친구와 함께 두 번 면회를 갔었다. 98년 5월에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강위원씨에게 면회를 갔었고(친구도 이날 처음 강위원씨를 만남, 98년 8월 강위원씨는 경주교도소로 이감), 두 번째로 99년 6월에 역시, 친구를 따라 광주교도소로 면회를 갔었다. 그때의 인연으로 2001년 출감 이후 연세대에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 서로 안면은 있었다. 간단한 인사와 사는 얘기가 오고 가면서 손님이 적은 어느 바에 들어갔다.

자신의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고 내가 왜 만나자고 했을지 아느냐고 물었다. 강씨는 당황한 듯 했고 난 말을 이었다.

“선배는 xx(나씨)와 함께 4월 14일 아침 7시 경 내 친구의 자취집에 갔습니다. (나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선배는 내 친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 xx(나씨)에게 침대 밑에서 자라고 하고 내 친구에게 함께 침대에 누워 안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후 선배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는 내 친구의 선배(차씨)에게 당신은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충분히 말했는데..’ 라고요. 친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사람이, 오히려 그 친구가 자신을 쫓아다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내 친구를 스토키로 몰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기억하세요? 당신은 친구가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내 친구를 성희롱 했습니다. 선배의 여성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나는 한 가지 더 이야기했다. “어느 술자리에서 최용철 얘기를 하는 내 친구에게 술잔을 얹으며 ‘뒤, 저런 년이 다 있어’ 하고 나가버리고, 후원 주점에서 담배를 주고 들어가는 내 친구의 뒤통수에 대고 ‘저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년, 저년 하는 말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맑은 정신으로 할 때는 애정 표현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때의 분위기를 봤을 때 분명 욕을 한 것입니다. 동지에게 그런 욕을 하다니요 그런 강선배의 버릇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씨는 몹시 당황해 했다. 기억하나는 나의 질문에 모두 기억한다고 대답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문자를 보고 그 일을 떠올렸다고 대답한 것으로 비추어 강씨도 분명히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강씨는 ‘나에게 그렇게 잘한 동지에게 그러면 안되는건데, 내가 정말 그 친구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다. 하지만 곧 중지에 물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예전부터 피해자에게 알아듣게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주변을 맴돌았다며 전에 자신을 좋아하는 후배들을 어떤 방법으로 뿌리쳤는지 늘어놓기 시작했다. (한 여성은 같은 학교 후배인데, 구속 수감 시 옥바라지를 하겠다며 면회를 자주 왔었다. 강씨는 그 후배의 마음을 알았기에 모질게 면회 오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 후배는 울면서 돌아갔다. 이후 후배는 다시는 면회를 오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아는 선배에게 하자 선배는 그것은 ‘또 다른 폭력’ 이라며 강씨를 야기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 - 이즈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



도 이야기했다. - 또, 한 여성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때로는 모질게 하기도 했지만 때때로 '또 다른 폭력'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결국 그 여성도 자신을 포기했다. 지금 그 여성은 여성학 관련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등)

강위원씨는 자신이 걸어온 삶에서 그러한 일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양 이야기했다.

초점이 흐려지자 나는 다시 물었다.

“다른 후배를 떼어냈던 것처럼 내 친구에게는 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선배가 말한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서 선배가 스스로 연락했죠?”

“네”

“내 친구가 강선배를 좋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친구에게 그런 행위를 했죠?”

“네”

“강선배는 내 친구의 감정을 이용해서 성희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묻자 강씨는 대답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씨는 혼자 차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난 반성문 쓸 것을 제안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과거의 행위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먼 과거까지 되짚어보며 쓰라고 했다. 그리고 반성문을 나에게 줄 것을 요구하자 강씨는 왜 줘야 하나고 반문했다. 나는 강씨의 고민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강씨의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중 교정할 것이 있으면 교정해 주겠다고 대답했다.

나의 제안에 강씨는 이렇다할 대답없이 계속해서 사건의 전후에 관한 설명만 반복적으로 늘어놓았다.(피해자가 자신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연락했고, 자신에게 다가왔다 등) 어떠한 경우에도 강씨의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장원, 이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자신도 감옥에 있을 때 그 소식을 접했는데 ‘그런 놈들은 운동권 잡쓰레기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가 당신도 다르지 않다고 하자 몹시 괴로워했다. 운동권의 잡쓰레기에 포함된 것을 못 견디는 듯 보였고, 자신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화를 냈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난 술 마시면 여자 생각하는데 넌 남자 생각 안나?’ 라고 말했던 일에 대해 기억하나?”고 묻자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화가 난 듯한 태도로 일관했고 나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과 술을 더 마시러 가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반성문의 필요성에 대해 제차 설명하고 계속해서 요구했다.

강씨는 자신 스스로의 모습이 무척 부끄럽다며 말했다.

“앞으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접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더 얘기하려는 나에게 이해해 달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성하며 산다는 증거를 보고 싶다고 하자 믿어달라고 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라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술집에서 나와서도 난 강씨에게 반성문을 쓸 것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른 술집으로 들어갔다. 더 이야기를 하면 강씨가 나와 피해자의 뜻을 이해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했던 것이다. ‘젊은이의 양지’라는 술집에서 강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난 그럴 때마다 사건을 상기시켰고, 강씨는 나에게 투정 부리는 말투로 지금은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 했다.

과거 피해자를 만났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다가 나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했다. 강씨는 나를 처음 본 후부터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난 ‘이런 식의 말투로 사람들을 만났을테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강씨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선배에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딴냐?”고 대답했다. 강씨는 투정부리는 말투로 ‘아니다, xx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다’며 그때 썼던 안경이 어떤 색이였는지를 말했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곤

“왜 나에게 한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다.

난 당시에 다른 누군가에게 썼다고 하자 강씨는 다시 “질투 나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얘기 끝에, 나와 평생 친구하지는 말도 했다.

강씨의 이런 식의 화법이 불쾌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편안 분위기에서 의도한 결과를 끄집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듣고 넘겼던 것 같다. 그러나 반성문 쓰는 부분에서 자꾸 막히자 나는 답답해졌고 그것의 해소 방안으로 난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했다.

노래방에서 강씨는 서서 노래하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각지를 자연스럽게 켜다. 피해자인 친구에게도 자주 각지를 켜다는 얘기가 떠올라 난 손을 뺐고 강씨도 손을 놓았다. 그러면서 농담처럼 ‘이것도 성희롱이라고 하겠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래방에서 나와 연세대 앞 글다리 근처에서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강씨는 다시 착잡한 표정을 지었는데 나는 강씨가 억울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강씨가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 친구도 정말 내가 성희롱했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러자 강씨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왜 xx(피해자)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적지 않은 섭섭함을 느꼈는지 자꾸 물어보면서 이같은 말도 했다.

“xx(피해자)는 그때 더 원했지만 내가 그냥 자라고 내보냈다.”(이후 친구(피해자)에게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달랐다.)

나는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강씨의 잘못을 다시 짚어내자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반성문이란 무엇이든 함께 고민하자고 얘기했고 강씨는 모든 것을 접겠다고, 그런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나는 강씨가 꿇주로 내려가면 앞으로 어떻게 만나겠냐고, 확답을 하라고 했지만 강씨는 연락하겠노라는 막연한 말만했다.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나는 화가 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일, 한 선배와 신촌에서 술을 마시며 강씨에게 난 문자를 보냈다.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러자 ‘이미 실망시켰고 참 좋은 사람으로 참회하며 살겠다.’라는 답변자가 왔다.

나는 다시 ‘같이 하자고, 어떤 방식이든 함께 하자고 문자를 보냈고 강씨는 ‘형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한편으로는 사람 관계가 무서워지기도 합니다.’라고 보내왔다.

사람과의 관계를 무섭게 몰고 간 주체가 바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의 잘못으로 떠넘기려는 강씨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번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개인적 믿음과 동지애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했던 나의 노력은 헛된 일이었다는 것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권 내의 권력의 문제, 사회에서 만연된 성폭력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 8월 5일 화요일

- 피해자가 친구 사씨에게 강위원과 만난 이야기를 듣고 강씨와 통화. 그 결과 강위원은 반성문 함께 쓰겠다고, 피해자 메일로 반성문을 보내기로 함.

[통화 내용]

피해자: “왜 반성문을(사씨에게) 안쓴다고 했느냐?”

(강위원 거의 말을 하지 않음)

강위원: “내가 너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피해자: “반성문 써라. ‘반성은 전진을 위한 디딤돌이다.’ 당신이 감옥안에서 나에게 쓴 편지 내용이다.”

(피해자는 수차례 이 말을 상기시키며 강위원을 설득함.)

강위원: “너에게 쓰겠다. 100장이고 200장이고 쓸 수 있다. 정말 정직하게 반성하고 싶다.”

피해자: “그럼 내 메일 주소 적어라. 그리고 내일부터 쓰자.”

강위원 : “나 바쁜 거 알잖아.”

피해자 : “지금 무슨 소리냐? 난 내 문제가 중요하다. 당장 내일부터 써라.”

강위원 : “그래 너 문제가 중요하겠지.”

그리고, 피해자는 사씨로부터 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강위원에게 물어봄.

피해자 : “xx(사씨)에게 그날 내가 더 요구했는데, 당신이 나가라고 했으며?”

강위원 : “어떻게 너 분신으로 나온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나? 그 친구말 믿지 마라.”

피해자 : “도대체 당신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이날 통화에서 강위원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정주의’에 호소함.

▶ 8월 7일 목요일 - 오전에 피해자가 강위원에게 문자를 보냄.

‘메일을 확인해 보니, 반성문이 없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8월 8일 금요일 - 피해자 핸드폰으로 밤 9시 39분 강위원에게 문자가 음.

‘아직 첫 문장조차 못쓰고 있네. 어렵고 쓰린 일이구만 좀더 기다려주세요. 곧 연락할게’

▶ 8월 18일 월요일 - 피해자, 오전 10시경 강위원에게 문자를 보냄.

‘반성문을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일 19일까지 연락하세요. 연락없으면 반성문을 거부하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후 다음 단계를 강구합니다.’

▶ 8월 20일 수요일 - 피해자 메일로 오후에 강위원에게 메일이 음.

[메일 내용]

정정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고역이라면  
넉넉한 여유로 기다려 주시리라 압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느낀 가장 큰 쓰라림은  
회복불능 상태로 접어든 신뢰의 파산이었지요. 그리고  
마치 피고인을 다루는 듯한 경고성 문자는 경고가 되기보다 절망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범죄자로 스스로를 공갈하고 격하하는 나를 보면서  
또다시 무모한 결벽주의의 극단을 절감합니다.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운명 전체를 놓고 나름대로  
철저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자기해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직한 성찰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에겐 침묵의 수업이 필요하답니다.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 중에 보낸이 이름란에 당신 이름이 적힌 책들을 볼 때마다  
당신과 약속한 고통스런 이 작업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당신이 이제부터는 저로 인해 힘든 일이 없길 그저 당신 가는 길에서 행복하길 바랄뿐입니다.

준배형 기일 이전에는 당당한 모습을 되찾고 싶습니다.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2003. 8. 20 강위원

▶ 8월 25일 월요일 -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 결성

▶ 8월 26일 화요일

- 오후 2시경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에서 대표 메일을 통해 강위원에게 요구 사항을 보냄.

[메일 내용]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은

가해자 강위원에게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 -- 강위원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제출 시한: 8월 27일 오후 3시까지)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02)338-2890/2,

하나 -- 강위원은 즉각 운동단체의 모든 직책을 내놓고  
위의 사항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 -- 가해자 강위원이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일은 <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에서 총화합니다.

▶ 8월 27일(수요일)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에서(모임 구성원중 타씨) 오후 3시 30분 가해자 강위원에게 전화함. 강위원이 이 시각까지 메일  
을 열어 보지 않음. 처음에 강위원 후배가 전화를 받았고, 타씨는 강위원 후배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강위원에게 전화  
를 달라고 이야기함. 잠시뒤 강위원에게 전화가 음. 타씨가 “보낸 메일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한 뒤 전화 해달라”고 하자, 강위원  
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음..그러나 그 뒤 전혀 답신이 없었음.

▶ 8월 30일(토요일) - 8월 31일(일요일)

피해자는 피해자가 속한 운동단체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에 참석함. 우연하게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운동권의 선배님들, 카씨와  
파씨, 두 분을 만남. 피해자는 선배님들께 ‘강위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야기함. 카씨는 피해자가 ‘강위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제식을 느낄 때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해오던 사이이며, 파씨는 그날 처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 파  
씨는 피해자에게 “강위원을 만나볼 터이니 앞으로 2주(9월1일 - 9월 14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함. 이에 피해자는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는 확고하며, 다만 선배를 믿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 밝혔음.

▶ 9월 15일(월요일)

강위원과 연락하고자 했던 파씨에게 전화가 오지 않아, 피해자는 오후에 파씨에게 전화함. 파씨는 “강위원에게 여러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이야기함,

## 가해자 1차 면담 보고

면담 일시 : 2003년 10월 2일 낮 1시

### 글 목차

- 가해자의 발언 정리 (가해자의 발언에 대한 비대위의 핵심적인 비판지점 포함)
- 1차 면담 결과
- 1차 면담 평가
- 이후 해야할 일

### 1. 가해자의 발언 정리

비대위는 가해자가 스스로의 가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말을 우선 듣고자 했다. 그리고 가해자의 발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가해자를 비판할 지점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기하는 과정이 있었다.

비대위는 몇가지 질문을 가해자에게 던졌는데, 이에 대해 가해자가 거기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 사건 해결의 과정에서 빚나가는 얘기는 빼고 정리한다.

#### \* 그동안 가해자 자신의 생각과 행동, 고민 과정 1

대책모임이 있는지 모르다가 '메일을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메일을 보게 되었다. 메일 확인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었다. 당시 목포교도소(목포지역 구속자 관련)에 있었고 (대책모임의 메일을) 피한 것은 아니었다. 국정원에서 나의 메일내용을 수시로 본다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일의 내용을 항상 다른 곳으로 옮긴다. 대책모임의 내용은 옮겼는데, 메일 주소는 못 옮겼다.

대책모임의 전화와 메일을 받고 난 후 피해자의 메일과 전화를 받았다.

당시 나는 스스로의 잘못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나도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의 메일을 피해자 개인 메일로 보냈다.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공부와 상담 등이 필요하므로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9월 중순순경 마음을 정리하고 아는 선배 몇 명에게 상담을 했다.

상담하면서 선배에게 '성희롱은 당사자(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문제를 떠나 굉장한 모욕이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반성문이란 표현을 처음 쓰게 되었다.

#### \*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2번 보낸 후 대책모임으로 반성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책모임과 피해자의 지인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성희롱 가해 사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후) 참 힘들어서 조안을 구하였었다. 그러나 조안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모임과 연락해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단했다.

스스로 고민이 안 풀여졌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을 쓰거나 행동을 하는데 있어 무서워졌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반성문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중에, 비대위의 전화를 받았다.

#### \* 그동안 가해자 자신의 생각과 행동, 고민 과정 2

잘못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지금도 정확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할말이 없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잘 몰랐다. 내가 그 친구가 되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예시당초에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도 정말 성희롱 당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선을 다했어야할 친구인데...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 나의 성희롱 가해사실을 들었을 때에는 스스로 감당이 안됐었다. 당시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잘 해결해보자고 다독여주기도 해서 고마웠다.

하지만 당시에는 억울했다. '피해자도 정말 성희롱 당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은, 뒤통수 맞은 기분이기도 했고, 나에게 잘한 피해자한테 그러면 안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었고, 왜 이런 관계가 되었던가 그런 고민들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다.

내가 '남녀문제'로 오해를 한 것 같다.

옥중에 있을 때 피해자가 나에게 면회를 자주 왔고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출소한 이후 2001년경 내가 오해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피해자한테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

#### \* 성희롱 가해 사실에 대한 확인

올해 초 개혁당 최용철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제기했을 때에는, 당시의 의식수준에서 스스로 감당이 안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못받아들였다.

4월달에 피해자 집에 간 것도 잘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해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했었다.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썼을 때에는 정직하고 싶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답이 올 줄 알았다. 또 대책모임에 피해자도 들어가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

('스토커' 운운 발언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그에 대해서는 자신의 심각한 잘못을 처음엔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스토커' 발언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한 것임을 비판했을 때, 비로소 겨우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의 지인 '파씨'가 가해자에게 연락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질문)

9월초 파씨의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파씨가 나의 성희롱 사건 때문에 전화하지 못하고 연락을 안받았었다. 같이 설악산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나의 상황은 설악산에 갈 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다시 닿았고, 반성문을 쓰라는 파씨에게 반성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 \* 지금 심정

변명이나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질병이라고 규정한다.

스스로에게 운동의 철학과 신념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왜 나의 행동에 대해 사고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니 스스로 오만했던 것 같다.

이제까지 살면서 도덕적 문제로 추궁당한 적이나 비판당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좀 무섭다. 왜냐면 이후에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연세도 있고 해서 결혼도 해야겠구나 생각하는데, 살다가 이런 문제를 부인한테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있어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까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왔던 것도 같다.

전여대협에 상담을 할까 생각도 했었다.

강연다니면서 새내기들한테 여성 관련 얘기도 했었으니 영향도 많겠구나 정치적 계산도 했었다.

97년 이석치사사건 관련한 돈문제 만큼은 정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대책모임의 연락을 받은 이후로는 이 일도 위임을 해주고 정리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일을 해놓고 운동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공부를 해야할지,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해야할지... 어쨌든 비대위가 있으니 비대위가 요구하는대로 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지인들에게 상담이나 조언을 했을 때,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후배들은 '왜 약해지려고 하는가'라는 말을 했었다. 후배들의 그런 말은 도움이 안되었던 것 같다.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비대위가 요구하는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이 자리에 있다.

현재 내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각오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비대위가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 2년간 외국에 나가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이제는 7년이란 시간동안은 이 땅에서 책임져야할 것들을 책임지겠다.

### \*\*\* 가해자의 발언에 대한 비대위의 핵심적인 비판지점 \*\*\*

#### 1) 성희롱 가해 과정, 성희롱 해결 과정 전반에 있어 가해자는 자기중심적이었다.

자신의 성희롱 가해사실을 '남녀관계'로 규정하고 대해왔던 것, 피해자를 스토커로 몰면서 자신의 성희롱 가해사실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피해자를 이용한 것 등 성희롱을 저지르는 전반의 과정에서 가해자는 극히 자기중심적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해왔던 노력도 자기중심적인 가해자의 모습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스스로 반성문을 쓰려고 했으며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조차 가해자는 피해자와 대책모임이 가해자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간이 끌어질수록 피해자가 더욱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시기를 정하고 방법을 정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가해자의 모습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었다.

#### 2) 가해자의 성희롱은 운동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가해자는 그동안 자신의 운동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던 운동의 문제점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바라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 피해자를 역으로 스토커로 몰기까지 하였다.

#### 3) 정말 힘든 이는 피해자였으며, 피해자를 힘들게 한 당사자는 가해자이다.

가해지는 면담 초반에 자신이 매우 힘들었음을 얘기했다. 하지만 위에서 얘기했듯, 피해자의 고통을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에 불과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정말 힘든 이는 피해자였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와 알고 지낸 7년간의 세월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렸다. 또한 정작 이 사건에 개입된 모든 이들을 힘들게 한 당사자는 바로 가해자임을 비판하였다.

#### 4) 가해자는 이제까지의 체면과 계산 모든 것을 버려야한다.

이제까지의 모든 변명은 무의미한 것이다. 정말 가해자가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살고 싶다면 이제까지 체면차리기에 급급했던 모든 모습을 버리고 철저히 반성하여야한다. 반성하고 새로 거듭나는 것이 다시 사는 길임을 강조했다. 가해자가 그런 결심을 했을 때, 비대위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얘기했다.

#### 5) 비대위가 가해자의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성격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줌.

- 친밀함을 이용한 성폭력

- 운동사회 내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 가해자는 학생운동사회에서는 영향력 있는 존재이며, 민족민주운동사회에서는 진보적 인사로 인식되는 사람으로서 운동사회에 성폭력적인 문화를 조성

- 가해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언커녕 피해자가 가해자를 좋아했다는 식으로 가해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주변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합리화하여 피해자를 매도함으로써 상당한 모욕감을 줌.

-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

- 피해자 뿐 아니라, '사씨'를 포함한 피해자 주변의 지인들에 대한 2차 성폭력과 상당한 분노, 충격을 안겨줌

- 피해자에게 운동사회와 사람, 동지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절망을 안겨줌.

- 특히 평소 '여성'에 대해 진보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얘기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

-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를 바꿔보고자했던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재차 성폭력을 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피해자의 사건 해결 노력을 차단

- 성희롱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함

- 장기간에 걸친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 &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2차 성폭력과 심리적 고통

- 피해자가 그동안 가해자에게 동지애적 의지로 감옥생활을 담보했던 것 등을 가해자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한 것으로 처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다)

## II. 1차 면담 결과

비대위는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 ① 공식적인 공개 사과문

-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무엇을 반성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지점(단지 가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과 사고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 서술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단체에 대한 사과

운동사회 내 성희롱적인 문화를 조성해온 가해자로서의 반성

앞으로의 구체적인 혁신과제와 실천과제 및 계획

위 사항을 지킬 것에 대한 약속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

- 공개 사과문은 1차적으로는 비대위, 2차적으로는 피해자가 검토한 후 불충분했을 때는 재작성을 요구한다.

- 공개 사과문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하기에 부적합할때에는 비대위 차원으로 다시 재작성을 요구한다.

- 공개 사과문은 한총련, 전여대협, 양심수후원회, 보이지않는창살 등의 홈페이지를 비롯해, 학생운동단체, 민족민주운동단체, 여성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② 활동 정지

- 가해자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총화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운동활동을 정지한다.  
-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간은 7년

#### ③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 한국성폭력상담소 정확한 시기와 내용은 비대위와 상담소의 논의 및 조정 이후 공지.

#### ④ 실천활동

- 가해자 재교육과 함께 실천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진행한다.  
- 구체적인 실천활동은 추후 공지. 실천활동은 서울 혹은 광주에서 진행한다.  
- 기간은 3개월 (이 3개월 동안 활동 정지, 실천활동,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 ⑤ 학습

- 구체적인 커리 추후 제출  
- 기간은 3개월

#### 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피해자의 주요 활동 근거지 및 거주지에는 가해자의 통행을 금지한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몇 곳을 포함)  
- 피해자의 전화나 메일 등으로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가해자가 나타나면, 가해자는 무조건 피해자를 피해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 ⑦ 정기적인 확인

#### ⑧ 가해자에 대한 재면담(총화)

- 가해자가 공개사과 이후 일정시간을 두고 위의 제반과정(활동정지,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천활동, 학습 등)을 진행한 후, 가해자를 재면담한다. 이는 가해자가 성희롱 가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했는지, 그리고 일만큼 재교육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가해자 재면담을 하기 전에 먼저 가해자가 그간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느끼고, 반성했으며, 재교육했는지에 대해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가해자가 제출한 문서는 웹상에 올린다. 공개대자보를 올렸던 홈페이지들에 올리는 것으로 한다.

가해자는 위 비대위의 요구에 대해 모두 수용했으며, 공개사과문은 10월 5일까지 비대위 메일을 통해 제출하기로 했고 피해자 접근금지도 바로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가해자는 아직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요구안 중에서도 공개사과문을 어떻게 써야할지에 대해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가장 어려워했다.

그리고 위와 함께 가해자 스스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던만큼 스스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 III. 1차 면담 평가

- 가해자에게 일단 이제까지의 태도에서 탈피시키고 비대위의 요구안을 전적으로 수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중요한 것은 이후 가해자가 비대위의 요구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일이다.  
- 또한 아직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후 가해자에게 하나씩 각인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IV. 이후 해야할 일

#### 1) 공개 대자보 작성

- 간단한 사건일지 정리  
-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문제점  
- 이제까지의 해결과정  
- 이후 해결과정(비대위 요구안 포함)  
- 공개대자보를 올릴 홈페이지 목록 뽑아보기

#### 2)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 및 논의

(학습커리도 상담소와 함께 고민)

#### 3) 실천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